美 경제 위협하는 4대 악재 몰려온다

파업·셧다운·학자금·고유가 호조세 보인 경제에 먹구름

"경제활동 4배 위협…감당 의문"

"사상 최초의 자동차 노조 동시 파업과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 우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및 100달러를 넘보는 고유가까지."

올해 놀라울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가 이 중에 하나의 충격은 견뎌낼 수 있겠지만, 이들 4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20일 금리 결정 회의 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에 대한 질문에 파업과 셧다운, 학자금, 장기간의 고금리, 고유가 쇼크를 꼽았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2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상황에서도 소비 증가와 낮은 실업률 덕분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유럽과 중국의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한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포드와 스텔란티스, 제너럴모터스(GM) 등 3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파업이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현재 제한적인 파업의 초기 영향은 미미하지만,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광범위한 공장 가동 중단이 지속되면 매주 경제성장률이 연율 0.05~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업이 자동차 생산량을 줄이고 차량 가격을 상승시키며, 자동차 부품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UAW 조합원 약 1만3000명은 지난 15일부터 디트로이트 완성차 조립공장 3곳에서 파업에 들어갔는데, 숀 페인 UAW 회장은 지난 22일 20개 주 38개 GM 및 스텔란티스 부품공급업체로까지 파업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에 도사리고 있는 또다른 복병은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셧다운) 우려다.

의회는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부 노동자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야당) 내부의 극단적 강경론자들이 지도부와 이견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강제 휴가에 들어간 이들은 소비를 줄이고, 정부도 일시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덜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5주간의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약 30만 명이 휴가에 들어갔고, 미 의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0.1%, 0.2% 줄었다.

다음 달 1일부터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되는 것도 미 경제에 부담 요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2020년 3월 교육부가 상환을 일시 중단한 이후 많은 대출자가 상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 팀 퀸란의 추산에 따르면 이는 앞으로 1년간 미국인들의 주머니에서 1000억 달러(약 133조 6000억 원)를 빼내 갈 수 있다. 이만큼의 자금이 다른 곳에 소비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WSJ이 마지막으로 거론한 악재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다. 학자금 대출과 함께 미국인들이 외식하거나 추수감사절 같은 명절에 선물을 살 때 덜 쓰게 만든다.

올해 여름 70달러대였던 브렌트유 가격은 최근 공급 부족 우려로 며칠간 90달러대로 급증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100달러마저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가가 견인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더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WSJ은 "(4대 악재 가운데) 각각은 지나치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특히 고금리로 이미 경제가 냉각되고 있을 때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짚었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업체인 EY파르테논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4대 악재와 관련해 "경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한 4배의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폭염 덮친 남반구 브라질 피서객들 24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마쿰바 해변에서 시민들이 섭씨 39.9도에 달하는 폭염을 피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가이아나·베네수엘라 일촉즉발 긴장 고조

유전 지역 영유권 놓고 영토 분쟁

남미 가이아나 영토를 대상으로 한 베네수엘라의 영유권 주장을 놓고 양국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가이아나와 베네수엘라 간 갈등은 금세기 들어 남미에서 가장 치열한 영토 분쟁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성명에서 "가이아나 정부가 조작과 위선, 부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토 방어를 위한 우리의 결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무례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국회는 가이아나 정부를 미국의 다국적 석유회사인 엑손 모빌의 '프랜차이즈'라고 규정하며 "엑손 모빌은 본질적으로 아직 분쟁 해결을 기다리는 지역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10년 사이에 국운을 바꾼 대규모 유정을 발견하면서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자원부국으로 환골탈태한 가이아나는 자국 영토인 '과야나 에세키바'(에세퀴보) 근해 지역에서의 석유 광구 배정을 위해 이달 중순 공개 입찰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에서의 석유 탐사 등은 엑손 모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서 맡고 있다.

남한의 약 1.5배 규모 면적(5만 9500㎢)으로, 가이아나 전체 국토의 3분의 2가 넘는 이 지역에 대해 "역사적으로 우리 영유지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곧바로 발끈해 가이아나를 향한 각계 비판 성명이 이어졌다.

국회에서는 '에세퀴보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 시행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美대선 양자 대결 여론조사

트럼프 51%·바이든 42%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24일(현지시간) 나왔다.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지난 15~20일 전국의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5%)에 따르면 가상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51%, 바이든 대통령은 42%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이 회사의 2월 조사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2%포인트 내려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3%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간 9%포인트 수준의 지지율 격차는 최근의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 월등하게 큰 수준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46% 대 48% (폭스뉴스·9월9~12일 조사) ▲47% 대 46%(퀴니피액대·9월 7~11일) ▲46% 대 47%(CNN·8월 25~31일) ▲46% 대 46%(월스트리트저널·8월 24~30일) 등으로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기록했다.

NBC방송이 지난 15~19일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오차범위 ±3.1%)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46%로 동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소행성 '베누' 샘플 담은 나사 탐사선 캡슐

24일(현지시간) 미국 유타주 더그웨이에서 소행성 '베누'(Bennu)의 흙과 자갈 등의 샘플을 채취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OSIRIS-REx)의 캡슐이 운반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해당 샘플이 지구 생명체 출현의 과정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전쟁 중 대선?…서방 압박에 우크라 '당혹'

"전시 선거는 패전 의미"

러시아와 1년 6개월 이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전국적 규모의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서방의 압박에 직면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시에 제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서방 지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서방은 지난 5월 유럽평의회 의회(PACE) 대표 티니 콕스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선과 총선을 열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올 10월 총선에 이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개전 이후 계속 연장된 계엄령에 따라 선거가 금지됐다.

그러나 콕스 대표는 올해 초 대지진을 겪은 뒤에도 대선을 치른 튀르키예 사례를 들며 "우크라이나도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찾아 무기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내년 대선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방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민주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2004~2005년 구소련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를 불러온 '오렌지 혁명'과 친러시아 정권을 축출한 2013~2014년 '마이단 혁명'으로 민주화를 이뤘지만, 서방 일각은 아직도 우크라이나에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시에 선거를 치르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당국자, 선거 전문가 등의 대체적 입장이다.

한 우크라이나 보안 당국 관계자는 러시아가 선거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치사회에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